

전기료 오르자 공공요금 인상 요구 줄짓는다

동북아 LNG값 1년 10배 ↑ …도시가스 11월 인상 대기
철도공사 2년째 조단위 적자…대중교통 등 지방도 아우성

전기요금 인상을 계기로 주요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당장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고 철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 대중교통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속히 오른 데다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공공기관에 누적된 손실이 한계상황까지 내몰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도시가스 요금 11월 인상 논의
26일 정부 당국과 17개 시도 지자체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철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 이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 내에선 도시가스 인상 논의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1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이미 전달했다”면서 “원료인 LNG 가격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더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되는데, 도매요금은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동북아 지역 LNG 가격 지표인 JK M은 지난해 7월 말 100만BTU(열량 단위) 당 2.56달러에서 이달 24일 27.4

9달러로 10배 넘게 급등했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는 배럴당 43.27달러에서 72.45달러까지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1.2%, 일반용 요금을 12.7% 인하한 이후 15개월째 동결해왔다. 원료비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통제했던 것이다.

결과는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이 급증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미수금은 현재 1조원 상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가 공개한 연말 기준 미수금 전망치는 1조5천억원이다. 최근 동북아 지역 LNG 가격 급등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미수금은 예상치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스요금에 반영되는 구조다.

◇철도요금·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필요”

철도 요금 역시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정부의 2021-2025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철도 운임에 대한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철도공사는 2011년에 철도요금을 평균 2.93% 올린 이후 10년간 요금을 동결해왔다. 인상 수요가 그만큼 늘어



26일 정부 당국과 17개 시도 지자체에 따르면 도시가스와 철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 이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 내에선 도시가스 인상 논의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26일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 /연합뉴스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철도공사는 지난해 1조3천427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역시 1조1천779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247.8%에 이어 올해는 297.2%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통행료는 연간 4조원 수준에서 정제된데 반해 감면 통행료는 점증하는 구조적

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행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지방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대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다.

대중교통 요금의 경우 상당수 시도에서 인상 요인이 쌓여있다.

서울은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에 지하철은 1천250원, 시내버스는 1천200원으로 6년째 묶여있다.

대전도 6년째 시내버스 요금이 1천250원으로 동결 상태인데, 시가 업체에

지원하는 손실보조금이 올해는 1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인상 요인이 크다.

이처럼 오랫동안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지 않은 시도들은 물가 상승분, 승객 감소에 유가 상승까지 겹쳐 인상 압박이 매우 강한 상태다.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인상 요인은 크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코로나19로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내년 선거까지 있어서 쉽사리 올리기 어려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투데이 경제

aT ‘나앳 꽃 온라인 축제’ 오늘 개막

일상생활 속 꽃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3회 양재 플라워 페스타'가 27일부터 10월31일까지 7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양재동 화훼공판장 개장 30주년을 맞아 '나앳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소비자와 화훼업계 종사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참여 프로그램은 배우 명세빈 등 다양한 강사들이 참여해 꽃차, 베이킹 등 생활 속 꽃 활용법을 강의하는 '플라워 클래스', 화훼공판장 공터를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 가드닝 활동인 '나앳 꽃밭 만들기', 시민들이 활동 중인 꽃 동호회를 소개하는 '꽃을 든 사람들' 등 다양하다.

행사 콘텐츠는 행사 홈페이지(f-square.kr)와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등으로 송출되며 사전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ZOOM을 통한 실시간 콘텐츠도 진행될 예정이다.

/기수회기자

코트라, ‘월드잡 토크 콘서트’ 온라인 개최

코트라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오는 10월1일까지 '2021 하반기 월드잡 토크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월27일부터 11월2일까지 열리는 '2021 하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과 연계한 사전 행사다.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일자리 정보를 얻는 '기업 인사담당자 라이브 토크', 글로벌일자리대전 참가를 준비하기 위한 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이력서·면접 특강', 주요 직종별 취업 선배들을 통해 해외취업의 노하우를 얻는 '직종별 해외취업 라이브 토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행사 참가를 원하는 구직자는 개별행사 2일 전까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에서 신청해 화상 시스템 접속 방법을 안내받으면 된다.

/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새 돈 교환’ 어려워진다

내년 3월부터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새 돈(신권·新券)으로 바꾸는 일이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새 화폐교환 기준에 따르면 내년 3월2일부터 통용에 적합한 화폐, 쉽게 말해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로만 바뀌준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금융기관·교환장구를 통해 한도에 환수된 후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화폐다.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화폐의 경우 새 돈(제조 화폐)으로 교환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다만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통용 가능 화폐의 제조화폐 교환이 일부 허용된다"고 말했다.

/기수회기자

순천업체 파루 ‘잉코 전기매트·담요’ 인기몰이

와디즈 앵콜 펀딩서 목표액 8천500% 달성

순천 소재 기업이 생산한 전기매트와 담요가 인기몰이중이다.

26일 순천(취파루에 따르면 계열사 파루인쇄전자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잉코’(INKO)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 오픈한 ‘잉코 전기매트·담요’(사진) 앵콜 펀딩에서 목표액 8천500%를 달성했다.



해당 전기매트와 담요는 최첨단 인쇄전자 기술을 이용, 먼 형태로 발열하는 첨단 고효율 발열 방식인 필름히터 기술이 적용됐으며 발열 핵심 재료인 은나노 잉크가 필름에 인쇄돼 열에너지로 발열하는 원리가 적용됐다. 일반 담요보다 2배 더 넓은 면적으로 콤팩트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잉코 전기매트·담요 제품은 1mm의 두께감과 1kg이 채 안되는 초경량으로, 휴대성과 보관성에 용이해 언제 어디서든 온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외 스마트 5종 안전 시스템인 과열 방지 센서, 온도 컨트롤 센서, 70도 이상 발열 시 자동 전원 차단, 12시간 자동 꺼짐 기능, 저온 화상 예방을 위한 낮은 온도 설정 기능이 탑재돼 있다.

/기수회기자

신보, P-CBO 5천200억 발행…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이달 5천2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발행에는 총 265개 중소·중견기업 등이 참여해 4천1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과 1천100억원 규모의 차환자금을 공급받는다.

신보의 P-CBO 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제도다. 대·중견기업은 회사채 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신보 내부평가등급 기준 K9(CPA 감사보고서 보유기업은 K1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보는 올해 P-CBO 발행을 통해 총

5조1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달 발행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4조2천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했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경영 위기 극복 자금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수회기자

로또복권

〈제982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5 7 13 20 21 44 / 보너스 33		
1등	3,023,630,672	6개 숫자 일치
2등	49,771,699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375,472	5개 숫자 일치
4등	50,000	4개 숫자 일치
5등	5,000	3개 숫자 일치

TIME CITY

명품시계수리전문점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 (TIME CITY)

책임 A/S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오토매틱 수리 전문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우편 집중국

롯데 마트

힐스테이트 110동

타임 시티

현대 힐스테이트 101~109

신협

겨자씨 교회

보훈 병원

급매 전문

늦으시면 앓차하십니다

상가건물

○ 고창 공음면 (2차선 포장도로변)

법성포, 가마미해수욕장 근거리

대지3,707㎡ 가공공장,창고,판매장3개동

매가:6억8,000(시세50%)

***기든경합비집,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화순군 화순읍 대리 동호인주택지

○ 광주에서10분

○ 자연녹지 6,600㎡

○ 급매가:5억3,800만원(시세50%)

***동호인주택4~6동 개발 최적

급히 구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땅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부동산 무엇이던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